

마태복음 27장 15-20절 말씀

상황-질문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설득㉑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설득㉒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